



정교회주보

제2498호

2024.11.10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크루파 수도원은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교회 수도원이며, 가까이에 있는 크루파 강에서 이름을 따왔다. 1317년 보스니아의 수도자들이 세르비아 국왕 밀루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립하였다. 수도원은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중요한 영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17세기 초에 그려진 벽화가 잘 알려져 있다.



루가 제8주일

성 올림바스, 성 소시파트로스,
성 테르티오스, 70인 사도들
(제3조 •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사도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204
- 사도경 : 갈라디아 1,11~19 (봉)287
- 복음경 : 루가 10,25~37 12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지금도 고난 받으시는 하느님

그 세주의 수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그분의 손을 묶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종종 부상을 당하십니다. 가끔 한 영혼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알게 된 행위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보다, 심지어 고통받는 자가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 가지는 의식보다 더욱 깊고 더욱 내밀한 동일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깥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아는 것’이란,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통하는 것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서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어리석은 믿음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언제부터인가 불행하게도 종교조차 물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르침으로써 종교의 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역시 일찍이 기복(祈福)신앙을 가르쳐서 부를 누림이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릇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죄와 회개와 그에 따르는 바른 삶을 살도록 신경 쓰며 이끌어야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매우 간단하게 변하여, 믿으면 복을 받아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단순 논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지적하고 바로 고쳐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기준은 물질과 출세이며, 불신의 기준은 가난과 병 그리고 무지라며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느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도 안에서 믿음의 등급은 알게 모르게 부의 기준에 의해 나뉘지게 되고 교인들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대우받고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유대교를 닮아가고 있고 바리새인을 만들고 율법 학자를 만들고 위선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신앙 행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믿음의 성숙과는 관계없이 돈 많고 지식인이면 축복받은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믿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세상살이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는 마음이 편해야지 복잡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여 영적 치유를 얻는 것보다는 남들한테 대우받고 존재감이나 나타내려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성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렵다는 등 거부반응만 일으킵니다. 천국의 길이 그렇게 쉽고 편안하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당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릇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아주 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미 믿었으므로 천국행 표를 구해 놓았기에, 이제부터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즐기며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신분 상승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회개하며 영적 치유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풍부한 진정한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 들고 약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나타내려 하지 않고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얼마가 되든지 남을 위해 떼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며 봉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 8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당신의 삶

인생의 길에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든 하느님께 묻기 전에 하느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당신의 타락과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또한 어떤 바람을 불게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쁨을 가져가시고, 그것을 슬픔으로 만드실지, 아니면 당신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실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성공을 주실지 아니면 실패를 주실지, 당신의 열정을 없애버리실지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실지 아십니까. 당신의 질병을 낮게 하시고 건강을 주실지, 아니면 당신의 건강을 빼앗으시고 질병을 주실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하느님께서 준비하고 마련하시도록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에밀리아노스 원로(1934-2019, 아토스 성산 시모노페트라 수도원 원장)

다가올 것에 대해
준비하기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대해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자연재해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둥이 치는 것과 같으며,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증언을 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 성 암필로히오스(1889-1970, 그리스 파트모스섬, 성 요한 신학자 수도원 원장)

주간 예배 안내

- * 11월 13일(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 * 11월 16일(토)
성 마태오 복음사도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소티리오스 대주교 회고록 준비

회고록 발간을 위해, 신자 여러분들이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나누었던 추억이나 경험했던 일들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구체적인 연도가 포함되면 좋습니다.

수기, 문서 파일, 음성 녹음 등의 형식으로, 각 신부님들을 통해 대교구로 보내주시시오. 원하시는 경우, 무명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알림

■ 성탄 대림절 시작

오는 11월 15일(금)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엔 아래와 같이 금식을 지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며,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시는 구세주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11월 15일-12월 17일 : 생선류는 허용되며 육류는 금합니다.

(수, 금요일엔 육류는 물론 생선류도 금합니다.)

12월 18일-12월 24일 : 엄격한 금식으로 육류와 생선류 모두 금합니다.

■ 서울 성당 결혼성사

지난 주일(3일), 성 막심 성당에서 성찬예배 후에 박 안드레이 & 김 인네사의 결혼성사가 로만 대신부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양구 성당 철야예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예배가 11월 29일(금)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숙소,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사무실로 22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샘터

영적 은사를 자랑말라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조언했다.

“그대가 어떤 영적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 은사를 그대에게서 거두어 더 겸손하고 선한 이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